

# 여순사건 순직 경찰·민간인 유족 '72년만에 화해'

“아픔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여수서 민·관·군·경 합동 추념식  
“아픈 과거 진실 되찾기 바란다”



19일 오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서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맨왼쪽)과 남중옥 순직경찰 유족 대표(맨오른쪽)가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제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올해는 순직 경찰 유족들이 추념 행사에 참석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이 모두 모여 희생자들을 추념했다. 합동 추념식에는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남중옥 순직경찰 유족 대표, 순직경찰 유족회, 전물군경유족회,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주철현 의원 등 정치인도 참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순직경찰 유족 대표가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화해와 상생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올해는 유족들도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추념식은 4대 종교단체 대표의 추모와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 영상 상영, 추모 공연,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10시 정각에는 목백 사이렌이 울려 여순사건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가졌다.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남중옥 순직경찰 유족 대표는 화동으로부터 동백 꽃다발은 받은 뒤 화해와 상생을 다짐하며 악수를 해 눈길을 끌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70여년의 세월과 시대적 그림자에 가려졌던 아픈 과거가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되찾기 바란다”며 “동백꽃이 역사적 비극보다는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상징하는 꽃으로 거듭나기 소망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좌와 우를 떠나 여수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역민들과 유족

들의 격려와 동참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재 의원(여수을)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조속한 사건 진상규명으로 72년이 넘는 오래된 한을 풀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추념식이 끝난 뒤에도 시민과 유족들은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국가권력이 빛은 시대 아픔”  
전남도 첫 ‘합동위령제’  
희생자 녀·유족 아픔 위로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 녀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전남도 주관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19일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구례 현충공원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허석 순천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전남도의회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위령제는 1부 위령제와 2부 추모식으로 나눠서 열렸다. 위령제에서는 희생자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무와 위령제 등이 펼쳐졌으며, 추모식에서는 추모사와 추모공연, 헌화와 분향 등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은 극심한 이념대립과 잘못된 국가권력이 빛어낸 우리 지역의 큰 아픔이지만 72주기를 맞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사법부의 여순사건 피해자 재심 최종 판결에서도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  
‘순천시민의 상’ 수상



강성채(왼쪽) 순천농협 조합장이 지난 15일 ‘2020년도 순천시민의 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년째인 ‘순천시민의 상’은 순천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강 조합장은 평생을 농업분야 전문가로 일하면서 지역 농업을 단일 농업으로 통합해 순천농협이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또 모바일 기반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추진으로 순천 농업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수의 계약’ 구매  
열화상카메라·살균소독기  
민관 합동조사 “제기능 못한다”

광양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 광양시 등으로 구성된 열화상카메라 관련 ‘민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달 14일까지 3주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위는 광양시가 상·하반기 구입한 열화상카메라 35대와 하반기 구입한 살균소독기에 대한 성능 현장조사와 구매 관련 서류감사,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사항 등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올해 3월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7대는 온도감지 허용오차(±2°C~최대 5°C)가 너무 커 공인기관에 의뢰해 정확성을 높여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8월 설치한 28대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의 안면과 사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것은 설치 초기 생체인식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 작동시켜 나타난 현상으로, 기능을 켜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적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노선 연장땀 갠벌 더 가까워서 볼 수 있어 세계 명물될 것”

순천만 스카이큐브 활용방안 공청회  
100여명 다양한 의견 제시...의견수렴



지난 16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스카이큐브 활용 방안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요금 8000원을 5000원으로 줄이면 관광객들이 보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애용할 겁니다.” “2-3개 역을 더 만들어 노선을 연장하면 갠벌을 가까이 볼 수 있어 세계적 명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 순천만 무인궤도차인 ‘스카이큐브’ 활용 방안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100여명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2km 구간을 오가는 6-8인승 소형 무인궤도차량이다. 포스코가 600억원을 투자해 완공, 2014년 5월부터 운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대기업의 민자투자 방식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포스코 자회사인 (주)순천에코트랜스가 사업을 포기, 내년 4월부터 순천시가 운영한다. 협약 사항 등을 놓고 1년 3개월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 만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순천시가 계속 말도록 주문했다.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시는 순천에코트랜스로부터 관련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문화관광에서 순천만습지까지의 이동수단 마련, 이동간 볼거리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들은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적자를 면하고 이용자가 늘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정원과의 통합발전’을 제안했다. 신택호 인수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스카이큐브 초창기에 직면한 순천만 환경 문제 등이 다시 재론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인 뒤 합리적인 경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포스코로부터 2021년 4월까지 스카이큐브 관련 시설물 일체를 관리제한다나 채무없는 상태로 인수하고, 각종 부품과 설계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과 내년 3월 두차례 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공청회는 순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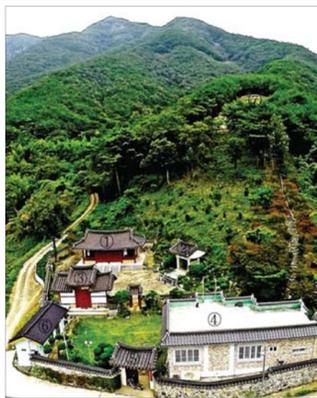
### 코로나-19에도

###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 준비합니다.

-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 갑자보(184년)
- ◆ 기묘보(1999년)
- ◆ 계해보(1863년)
- ◆ 학사공파(1935년)
- ◆ 정미보(1907년)
- ◆ 평장사공파(2012년)
- ◆ 갑오보(1954년)
- ◆ 의령옥씨 1500년사
- ◆ 병진보(1976년)
-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 편찬위원장: 옥삼중, 옥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동회장[추진위원장] 옥치남 010-3550-8912